

“유전자는 아뢰야식이 아닌 말라식”

우희중 서울대 교수, 7월 16일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유전자의 발현은 단순히 DNA 염기서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이 후성유전학(epigenetics) 등의 첨단 생명과학으로 밝혀지고 있기에 DNA는 제7식인 말라식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대한 이론은 아뢰야식이 우주만물의 근본이라는 유식이론과 맞닿아 있다는 조명이 이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가 유식의 제7식인 말라식과 밀접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희중 서울대 교수(사진)는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7월 16일 개최한 ‘DNA와 아뢰야식’ 열린논단에서 “DNA를 모든 존재의 토대인 아뢰야식으로 보기에 극히 제한적”이라며 “개체의 토대라는 점에서 아뢰야식의 집장과 연계

되는 말라식에 가까우며, 환경과의 조건과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자도 전6식에 연계돼 자리잡은 말라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식에서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8식으로서의 종자식인 아뢰야식은 함장식(含藏識)으로 불리며, 세부 측면으로 능장(能藏)·소장(所藏)·집장(執藏)의 3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우 교수는 “종자식인 아뢰야식은 모든 종자를 굳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며 “말라식은 아뢰야식에 저장된 종자를 이끌어 내어 발현하게 함으로써 생명체로서의 개체의 인식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뢰야식과 전6식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마음자리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는 마치 유전자라는 물질



로서의 생명체에서 생물학적 관계로부터 자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 관계로의 도약과도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교수는 “사회생물학자들은 모든 인간의 문명과 문화적 행위가 유전자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DNA는 물질이지만 물질로부터 생명현상 발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DNA에 바탕

한 유전자는 생명체의 특징인 개체성 발현의 근거가 된다. DNA는 생명현상을 담고 있는 물질이고 조건이 맞다 해서 그 무엇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유전자의 발현은 단순히 DNA 염기서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이 후성유전학(epigenetics) 등의 첨단 생명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체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인간에 있어서 2:8의 비율이 제시되고 있고, 환경에 의한 영향이 최소한 2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말라식의 본질적인 성질인 사랑(思量)은 물리적인 용어로 ‘vector force’로서, 빈뇌에 물들어 있는 상태의 염오식(染汚識)으로서의 말라식은 오염된 자아 의식인 자기중심주의로 나타나게 되기에 개체로서의 근거이자 바탕이 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 부탄 불교문화 관리에 도움 준다

문화재청, 7월 3~9일 부탄 현지서 기술교육 실시

한국정부가 불교문화의 보고인 부탄지역의 문화재 보존에 나섰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7월 3~9일 1주간 부탄 국립박물관에서 문화부, 왕립박물관 등 국립기관의 문화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지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현지기술교육은, 상대적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이 취약한 아시아권 국가에 문화재 보존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보존 기술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현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현지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도 유물을 직접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탄은 오랜 불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로, 중요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방법과 안전한 보관·관리, 기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번 현지기술교육은 직물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사진 촬영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직물은 부탄 내에서 지금까지도 전통기술의 맥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자, 보존기술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덕현 기자

“우리 것이지만 훔쳐온 것이기에...”

한국 정부, ‘동조여래입상’ 일본에 반환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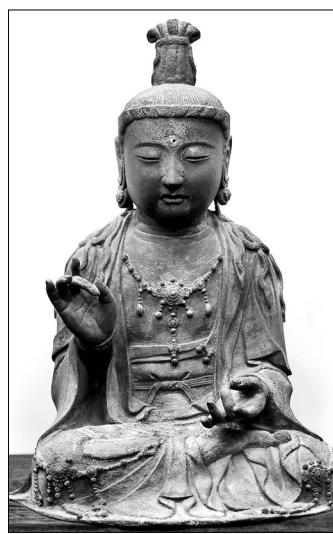
2012년 서산 부석사 불상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동조여래입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반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 4명이 일본 쓰시마(對馬)섬 카이진(海神)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사진)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다만 서산 부석사 불상은 부석사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만큼 반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산 부석사 불상은 법원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동조여래입상의 경우 불상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현재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취 당시 점유자였던 카이진 신사를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환이 결정된 동조여래입상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 38.2cm, 무게 4.1kg 크기의 불상으로, 8세기 전반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에서 1974년 6월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일본 측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지이 신문은 같은날 ‘한국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 발표 이전 반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 서산 부석사 불상은 보류

“감정 배제, 국제법 등 따라 처리”

일본 측의 약탈문화재 반환 주장도

이에 대해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해문 스님은 “쓰시마에서 훔쳐온 불상 중 약탈당한 증거가 없기에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 특히 형사법은 절도범을 붙잡으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를 민족감정으로 대응해 해결하려 하면 더 꼬이게 된다. 역으로 일본 측이 소장한 한국문화재 또한 불법적인 증거가 있다면 의당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성철불교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로”

백련불교문화재단, 마음공부 요지 모은 <명추회요> 출간

마음에 관한 논의의 요지를 모은 ‘명추회요(冥樞會要) 한글본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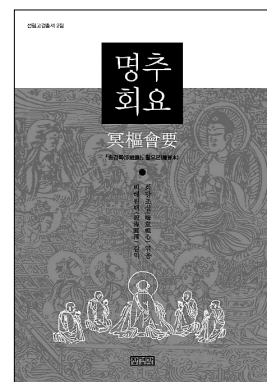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가 마음에 관해 논한 ‘종경록(宗鏡錄) 중 회당조심(晦堂祖心, 1025~1100) 선사와 영원유정(靈源惟清, ?~1115) 선사가 상·중·하 3권으로 요약해 모은 것이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이번 ‘명추회요’ 한글본 번역을 1권으로 엮었다. 이번에 출간된 ‘명추회요’는 성철 스님이 생전에 발간한 총 37권의 ‘선림고경총서’에 이은 후속작 성격이 강하다. 성철 스님은 생전 ‘선림고경총서’ 중 하나인 ‘선문정로(禪門正路)’에서 고려 이후 관심이 멀어졌던 ‘명추회요’를 언급했다.

성철 스님은 “‘종경록’은 어려운 책이니 ‘명추회요’라도 번역해서 유포하면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며 말을 남긴 바 있다.

성철 스님의 상좌 원택 스님은 번역불사를 발원한지 23년만에 회향했다. 원택 스님은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비판’으로 국한되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성철불교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성철 스님은 선과 교를 부처님의 중도사상으로 일관되게 논의하셨다”고 전했다.

원택 스님은 “중도로 선교를 설팬한 ‘백일법문’, 수행론으로 돈오돈수를 천명한 ‘선문정로’, 중도판으로 역대 조사 공안을 드러낸 ‘본지풍광’을 깊게 연구해 한국 선교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명추회요’는 일본 가경 원년(1387)에 간행된 판본으로 고마자와대학과 중앙대학교에 소장된 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와 대진, 선암 스님 등 전문번역가들이 나서 중국 종교문화출판사에서 출판된 ‘영명연수 선사 전서 상, 중, 하’를 참조해 인용문속 인용문장에 대한 부호와 표점을 재정리했다.

원택 스님은 “역경불사는 역경가와 시간과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단이나 동국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부처님 말씀을 한글로 잘 번역해 온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번역 불사야말로 불교발전을 위한 백련대계 불사”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불교 경전의 고한문을 공부할 연수생을 모집한다.

2015년 2학기 기본과정 개설과는 초·중·고·대학원생, 노자, 원각경, 한문법 강좌, 논어 등 주제로 진행된다. 7월 31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letsgho@empas.com)이나 한문아카데미 사무실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선발과 일반연수생으로 나눠 모집한다.

선발 연수생은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이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의 추천을 받은 스님이어야 한다. 일반 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 불전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정원은 30명이다. 한문아카데미 개강일은 오는 8월31일이며 수업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7월 31일까지 가을 논문 공모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충남)는 9월 19일 동국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을 논문 발표회’에서 발표될 논문을 공모한다.

박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발표 주제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발표를 신청하려는 이는 소정 양식의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 전자우편

(bulgyohak@daum.net)으로 발송하면 된다. 논문계획서 신청 마감은 7월 30일 오후 5시. 신청자 중 발표자를 선정해 7월 31일 이후 개별통지한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신진학자 발굴과 양상을 위해 봄, 가을 연 2회 논문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010)4313-2122

노덕현 기자

한국종교연합, 제77차 평화포럼 개최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 천도교 교령)이 주최하는 ‘2015 제77차 평화포럼’이 7월 21일 오후 5시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 907호에서 열린다.

상징성시대 최용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 충북대 윤리교육과 김용환 교수는 ‘생명살림과 생명나눔의

상관연동’을, 숙고개성당 김홍진 주임신부는 ‘가톨릭교회의 여력의 실천과 생명나눔 운동’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 는 조계종 미래사 주지 해봉 스님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김대식 강사가 각각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흥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ICB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문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